

제22절 조금2리(操琴二里)[속명 : 상조금(上操琴)]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조금1리의 원수곡(元帥谷)과 접하고, 서쪽은 조금1리(下操琴)와 인접하며, 남쪽은 갈매봉을 경계로 영덕군 창수면과 닿아있으며, 북쪽으로는 응봉산(鷹峰山)[후포면 삼율리와 온정면 덕인리, 금천리 사이에 있는 해발 339.3m 규모의 산]이 바라보인다. 마을 형국이 ‘조리형’이어서 ‘10년 동안 곡식을 모아 곡식이 가득 차면 마을을 떠나야 잘 산다’라고 여겼다. 마을회관은 2002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2. 마을의 역사

상조금을 처음 개척한 성씨는 평해 황씨로 전해지며 이어 영해 박씨, 밀양 손씨 순으로 입향하였다고 전한다. 1765년경에는 강원도 평해군 원서면 조금리에 속했으며, 1912년에 강원도 평해군 원서면 상조금리로 분할된 후, 1917년에 강원도 울진군 온정면 조금리로 개편됐다. 1971년에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조금2리로 편제되었다. 상조금은 도래마, 거리마, 새물골, 웅구골의 네 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고려 사찰로 추정되는 선암사지가 현존하며, 거리마 입구에 황길보 유허비가 있다. 상조금의 수구당이 있는 암반에 각석문이 있다. 확인되는 각자는 천석(川石), 운암(雲岩), 송암(松岩), 수석(水石), 금계동(金溪洞), 수현(水軒), 수문(水門), 침석(枕石), 용암(龍岩) 등 12개이다.

3. 가구 분포

총 30세대가 거주하며 밀양 손씨(密陽孫氏), 영해 박씨(寧海朴氏), 평해 황씨(平海黃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금산각(金山角)

옛날 산(山) 위에서 일출(日出) 시에 금빛이 났다고 하며, 또한 이 산의 모양이 짐승의 뿔 같이 생겼다 하여 금산각(金山角)이라 한다.